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Perfect Reading #1



안녕하세요, 햇님쌤입니다. ^^

지난주에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Perfect Reading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칼럼에 대한 뜨거운 반응에 너무 놀랐고,
변화하고 있는 수능영어에 대한 대처 방법에
여러분이 얼마나 목말라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수능 영어의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대처는
기본으로의 복귀, 기본의 확실한 정복, 즉,
완전한 구문 해석에서부터 완전한 의미의 이해까지를 말합니다.

오늘도,
글의 진행은 마치 강의를 하듯, 제 의식의 흐름을 따라 썼구요,
죄송하지만, 편의상 빠른 호흡을 위해 경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Perfect Reading #2

오늘의 문장

A society which agrees on the range of aims it is going to pursue still has to agree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im and the degree to which each should be prioritized.

문장 해석

해석은 언제나 다음의 원칙대로 한다.

물론, 이것은 해석 연습의 원칙이다.

실전시에는 이것이 본인 방식대로 자연스럽게 재탄생되면 된다.

- ① 앞에서부터 뒤로 한 방향으로 나가며, 되돌아오지 않는다.
- ②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지나간 부분을 잊지 않도록 집중하고, 기억력을 훈련한다.
- ③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
- ④ 자신을 이해시키는 해석이 가장 좋은 해석이다.

자, 그럼 해석을 시작해보자.

A society

한 사회는

문장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명사구는 주어이다.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한다는 것은

'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는'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주어면 주어답게 positioning을 시켜주는 것이 해석의 기본이다.

which

뭐냐면



명사 다음에 나온 wh는 관계사이다.

즉, 명사를 꾸민다.

그러나 뒤를 해석하고 '~한 한 사회는'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아가던 방향대로 나아가던 속도대로 나가야만이

해석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다만, 관계사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뭐냐면'이라고 해석한다.

agrees

동의하는

현재형으로 '동의한다'이지만,

관계사절의 본동사이기에

관계사절이 선행사를 꾸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동사를 꾸며주는 해석으로 바꿔준다.

on the range

그 범위에 관해

전치사 on은

여러 가지 해석법을 가지지만,

위치가 아니라 추상적인 상황에서는

'~에 관해'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ex) I decided on what college to apply for.

나는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에 관해 결정했다.

of aims

목적들의

it

그것이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aims 에서 it is로 넘어갈 때처럼
명사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주어+동사가 나오면
관계사가 생략된 것이다.
그러므로 it is ~ 이하는 aims를 꾸며준다.

is going to pursue

추구하려는

is going to, is likely to와 같이
be ~ to V 는 하나로 묶어 해석한다.
is going to는 will과 같으므로
'추구할 것이다'이지만,
이것이 관계사절이므로
해석의 끝을 꾸며주는 해석으로 바꿔준다.

still has to agree

여전히 동의해야만 한다

have to V는 must처럼
하나의 조동사 역할이므로 같이 묶어서 끊는다.

on the relative importance

그 상대적인 중요성에 관해

of each aim

각 목적의

and

그리고



the degree

그 정도에 관해

and 다음에 나오는 성분은

병렬에 걸려 있으므로,

이것이 누구와 병렬인지를 생각해야 해석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는 on the relative importance와 병렬이므로

전치사 on을 함께 쓰고 있다.

이 전치사의 해석을 같이 붙여줘야 해석이 매끄럽다.

to which

어느 정도까지

전치사 + which도 일단 관계사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앞의 the degree를 꾸며줄 것이다.

이때, 역시 해석은 나아가던 방향대로 나아가게 해준다.

전치사의 해석을 그대로 해주고

which가 앞의 선행사를 받고 있음을 명심한 채 해석을 진행한다.

ex) I couldn't reach the level beyond which my father had advanced.

나는/ 도달할 수 없었다/ 그 수준에/ 그것을 넘어서/ 내 아버지가/ 나아갔었던.

전치사 + which의 해석등과 같은 해석법들을

‘방법’이나 ‘원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반복’이며, 연습이다.

즉, 몸에 익혀질 때까지 반복하다보면,

그 쓰임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each

각각이

should be prioritized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to which도 관계사이기에

해석 끝을 꾸며줄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듬었다.

동사의 변형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 마라.

마치 한국어의 글씨를 읽듯

정확하게 약속된 의미대로 번역해본다.

다음의 과정을 따라보자.

prioritize 우선시하다

prioritized 우선시 되는(과거분사: 수동의 형용사)

be prioritized 우선시 되다(be 동사: 우리말의 '~다'의 역할)

should be prioritized 우선시 되어야 한다(조동사 should의 결합)

- 이제 다음의 끊어진 단위를 보고 거기에 맞춰 해석해본다.

A society/ which/ agrees/ on the range/ of aims/ it/ is going to pursue/ still has to agree/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im/ and/ the degree/ to which/ each/ should be prioritized.

-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끊어진 단위를 보고 맞춰 해석해본다.

A society/ which/ agrees/ on the range/ of aims/ it/ is going to pursue/ still has to agree/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im/ and/ the degree/ to which/ each/ should be prioritized.

몇 번이고, 의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까지 해석해본다.





의미추출

A society which agrees on the range of aims it is going to pursue still has to agree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im and the degree to which each should be prioritized.

A society which agrees on the range of aims it is going to pursue
한 사회는/ 뭐냐며/ 동의하는/ 그 범위에/ 목적들의/ 그것이/ 추구하려는

그것(it)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옮겼다고 해석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문장 속에 존재하는 모든 대명사들은

그 주인을 찾아야 한다.

이때, 영어는 대명사와 그 주인의 단수 복수 일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쓴 채 찾아본다.

it은 단수이므로,

A society와 the range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둘을 대입하여 결정해보면,

A society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의미는

어떤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의 범위에 관해 동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제, 이해의 영역이다.

본인이 가진 사회, 경제적 지식으로 이 말을 이해해야 해석이 마무리된다.

만약 의미가 쉽게 오지 않는다면,

반례추론을 사용해 케이스를 두 개로 늘려보자.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의 범위에 관해 동의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의 범위에 관해 동의한 사회

모든 사회는 나아가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이 있다.

그런데, 사회는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가 무엇을 목표로 할지에 대한 바램들이 다 다를 수 있다.





이때,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동의'를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still has to agree
여전히 동의해야만 한다.

still과 같은 부사들은
독해에서 '강조의 뉘앙스'를 전달한다.
only, just, even 등도 마찬가지다.

still을 그저 영혼없이 '여전히'라고 번역하는 것과
그 강조의 뉘앙스를 느끼며 '그! 래! 도!'라고 번역하는 것은
의미의 전달이 전혀 다르다.

즉, still을 살려서 이해하면,
~에 동의를 했더라도, 여전히!(그!래!도!) ~에 동의해야만 한다!
는 의미가 된다.
즉, A를 동의했다고 끝이 아니라 B도 동의해야 끝난다는 것이다.

결국 문장 전체의 골격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still의 힘이다.
이 문장 전체는
'A에 동의했다고 해도, 여전히 B까지 더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자연스럽게
A가 무엇이며, B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하며,
그것을 밝혀내어 A와 B의 차이점을 느끼면
이 문장을 완벽히 이해한 것이다.

A는 무엇이었는가?
한 사회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들의 '범위'였다.

그렇다면,
이제 B를 잡으러 가보자.



on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aim

각 목적의 상대적인 중요성에 관해

each aim은

이미 A에서 등장했다.

즉, 이 사회가 범위로 동의한 것에 들어있는 목적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 각각의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이라고 했다.

즉, 각각의 목적은 '무조건(절대적)' 중요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a라는 목적은 b라는 목적보다는 중요하지만,

c라는 목적보다는 덜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동의된 범위 안에 들어있는 각 목적들의 중요성의 '서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하,

그렇다면 A는 범위, B는 중요성의 서열이 되는 것이다.

이정도가 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핵심 의미를 잡았기 때문이다.

아직 문장이 남았지만,

이정도의 확신있는 강력한 의미가 나타났다면,

이후 같은 문장안에 역접이 있지만 않으면,

그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후의 내용을 읽는다고 해도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같은 맥락에 추가'하겠다는 생각정도면 된다.

이 문장은 결국

어떤 사회가 추구해야 할 목적의 범위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 목적들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즉, 무엇을 더 먼저 추구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동의를 이뤄내야만 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를 정리해보자.

and the degree to which each should be prioritized.

그리고 각각이 어느 정도까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하는 정도에 관해서

the degree 다음에는 관계사가 to which로 정해져있다.

즉, the degree to which ~~가 나오면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하는 그런 정도’라는 뜻이 되며,
우리말의 매끄러운 번역은 완전한 의역이 아니면,
힘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번역가가 될 것이 아니다.
항상 ‘자신을 이해시키는 해석’이 가장 실전적이며, 좋은 해석이다.

어쨌든,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는
‘우선순위(prioritize)’이다.

앞 부분을 충실하게 이해했다면,
이 prioritized가 낯설지 않아야 한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바로 relative importance와 prioritized는 같은 맥락인 것이다!
우선순위라는 것의 의미도 결국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이니까
‘상대적인 중요성’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된다.

어떤 사회는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들의 범위에 관해 동의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각 목적의 상대적 중요성과 각각이 어느 정도까지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동의를 더 해야만 한다.

이 문장을 완전히 느꼈다면,
어떤 식으로든 틀리지 않고 말을 약간 다르게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니까, 중요한게 목적들의 범위에 동의하는게 아니라 뭐를 먼저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야.”

이렇게 확신있게 내뱉을 수 있다면,
그리고 시험 상황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이 문장이 들어 있는 지문이 어떤 문제로 나오든,
여러분은 그 문제를 맞힐 수 있다.

즉, 이것이 주제로 나와도
위에서 말한 A(범위)와 B(상대적 중요성) 중 어느 하나에 어휘나 빈칸을 걸어놔도
맞힐 수 있다.

이것이
독해의 완성이다!!!

이 문장의 의미 파악에서 사용했던 의미 파악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 ① 대명사의 주인 파악
- ② 반례추론으로 케이스 두 개 만들기
- ③ 강조어를 강조어답게 느끼며 해석해주기

이제 이 문장을 Build-up을 통해 완전히 내것으로 체화한다.



Build-up

한 사회는/ 뭐냐면/ 동의하는/ 그 범위에 관해/ 목적들의/ 그것이/ 추구하려는/ 여전히 동의해야만 한다/ 그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 각 목적의/ 그리고/ 그 정도에 관해/ 어느 정도까지/ 각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Build-up은 외우는 것이 아니다.

많이 생각하며, 많이 쓰는 것이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쓰면서

자연스레 영어의 어순과

각 문장성분의 '약속된 해석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보편적인 문장'들의 해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고자 하는 것이다.

첨부한 연습지에 완전히 맞춰서 써본다.

이후에는 아예, 연습지가 없는 곳에 문장을 기억해서 써본다.

이때, 무조건 영어를 외워쓰지 말고,

우리말을 기억해놓고, 그 말을 떠올리며, 영작(build-up)을 한다.

우리말을 기억할 때에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뒷말을 자꾸 유추해내려고 노력한다.

뒷말 꼬리물기

한 사회는(무슨 사회?) → 뭐냐면(원데?) → 동의하는(뭐에 관해?) → 그 범위에 관해(무슨 범위?) → 목적들의(무슨 목적?) → 그것이 추구하고자 하는 → 여전히 동의해야만 한다(뭐에 관해?) → 그 상대적 중요성에 관해(뭐의 상대적 중요성?) → 각 목적의 → 그리고 그 정도에 관해(어떤 정도?) → 각각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또한, 평상시에도 한국어를 할 때,

자꾸 영어의 어순으로 바뀌어서 말하려 노력해보는 것도 좋다.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



자,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문장과

내용은 모두

오르비 클래스의 제 강의 '입구'의 일부입니다.

더 관심 있으시고,

더 정식으로 공부해보겠다는 학생들은

'입구'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연습지와 오디오 파일을 가지고

계속 연습하세요.

언어는 결국 체화, 즉, 반복에 길이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은 반복의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남는 시간에 이것을 들으면서 머리로

빌드업을 해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의 표시를 ^^



햇수

햇님쌤과 함께하는 공간!

<http://cafe.naver.com/hatsoo>